

투데이 칼럼

짚은 난방용품 사용 저온화상 주의하길

추운 날씨에 핫팩을 붙이고 등산갈에 오른 50대 A 씨는 핫팩을 붙였는데도 따뜻한 느낌이 없자 핫팩을 옷 위에서 맨살로 옮겨 붙였다. A 씨는 그런 채로 한참 있다가 나중에 핫팩을 떼어낸 후 사체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핫팩을 붙였던 자리가 벌겍게 달아오라 있고 가렵고 따끔거리기까지 한 것이다.

60대 B 씨는 저녁에 친구들과 술자리트 갖고 집으로 돌아와 전기장판 위에서 잠이 들었다. 술기운 때문에 옷을 벗은 채로였다. 그런데 B 씨가 눈을 떴을 때 전기장판에 엉덩이 한쪽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B 씨는 화상전문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심재성 3도 화상이다. 피부이식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몇 년째 전기장판을 상용해온데다 온도도 높지 않았기에 의아했다. 별다른 통증도 없었고 부위가 크지도 않았다. 이처럼 별로 뜨겁지 않다는 생각에 무심코 사용한 온열제품으로 인한 '저온화상'이 늘고 있다. 그냥 생활하기에는 썰렁하고 보일러를 틀자니 비용 부담이 커 전기장판 또는 온수매트만 깔고 생활하다 화상을 입는 것이다

-안 뜨거워도 '저온화상' 입을 수

있어 사람들은 흔히 고온에서만 화상을 입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물이 끓는 온도인 100°C의 액체나 물체에 스킨기만 해도, 68°C에는 1초, 48°C 온도에는 5분간만 접촉해도 생긴다. 저온화상은 낮은 온도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특성상 고온에 의한 화상보다 상처 면적은 좁지만 깊이는 깊다. 저온화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80%가 3도 화상이다. 3도 화상은 피부 표피와 진피 모든 층이 화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엉덩이 허벅지와 같이 전기매트에 접촉하는 부위에 잘 생기고 피부가 괴사해 하얀 색상을 띠다 감각이 없을 뿐 별다른 통증이 없이 자신이 화상을 입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이유로 며칠이 지난 후 병원을 찾는 사람이 대다수다. 치료는 깊은 상처 때문에 80%이상

이 피부이식수술을 필요로 한다. -왜 저온화상이 생길까 핫팩은 처음 개봉해서 흔들여 열을 내면 70°C 가까이 온도가 상승했다가 차츰 낮아져 평균 40~70°C를 유지한다. 물론 일정도의 온도에서 화상을 입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고 사용하지만 함정은 바로 '노출시간'에 있다. 40~50°C의 온도는 화상을 입기엔 비교적 낮은 온도지만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피부가 노출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피부 깊숙이까지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며, 저온화상을 입는다. 저온화상을 야기하는 것에는 전기매트와 전기장판을 또 빼놓을 수 없다. 최근 전자파가 없다는 이유로 각광받고 있는 온수매트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영하의 실외에서 오래 있다가 실내로 들어오면 따뜻한 곳부터 찾는다. 몸이 찜찜 얼었기에

온도가 높은 곳에 누워도 뜨겁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 때문에 오히려 전기매트나 온수매트의 온도를 높인다. 이때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나른해져 잠이 들고 그러면서 피부가 익어 감각이 무뎠고 다시 피부가 타는 일이 벌어진다. 특히 술을 마셨거나 수면제를 먹었다면 저온화상을 입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 항히스타민제가 들어 있는 깊은 잠을 유도하는 감기약도 그렇다. -저온화상을 예방하려면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의 경우 그 위에 두꺼운 요 한 장만 깔면 된다. 전기장판위에 아무 것도 깔지 않고 누워면 접촉한 피부에 열이 밀집돼 온도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조직이 괴사되면서 신경이 손상돼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렴한 이유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다는 화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불이는 핫팩의 경우 반드시 옷 위에 붙여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한다. 전기난로 사용 시에는 최소 1m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저온화상은 한 자세로 오래 노출될 때 생기는 만큼 간지러우면 온도를 조절하거나 자세를 바꿔야 한다.

김유재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독자제언

데이트 폭력, 사랑싸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

지난달 22일경 대통령 경호실 소속 경호원 A씨가 여자친구B씨와 21일 저녁 8시 30분부터 22일 오전 4시 30분 까지 8시간 데이트를 하는 동안 자신의 차 안에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팔을 비트는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행사해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둘 중 한방이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을 말하는 것으로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인종, 연령, 경제 수준,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상대를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또한, 상대의 일상을 통제하고 자신의 규칙 내에서 움직이길 바라며 상대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며 여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연애에 모든 것을 걸고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용서해 달라."라며 몇 번이나 사과하고 매달리는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 받아주게 된다면 돌이키기 힘든 데이트 폭력의 늪에 빠지게 되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지'하여 단호하게 이별을 하거나 함께 전문 병원을 찾는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폭력이 사랑으로 잘못 인지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하여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길 기대해본다. 충청원 전북지방경찰청기동대 순경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독자제언

교통사고 중요 증거 차량 블랙박스 설치

교통사고는 자동차 증가추세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신체를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다. 특히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크다. 경찰로서도 뺑소니 범을 검거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운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렵게도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고 현장에 CCTV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사는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때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차량용 블랙박스이다. 최근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자료로 활용해 목격자 없는 교통사고나 뺑소니 사고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사고에서도 블랙

박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얼마 전 지구대에 민원인 한 명으로부터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가 손을 다치는 뺑소니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아 상대 운전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차로변경 운전으로 인해 사고자와 상대운전자간 시비문전이 일어 신고자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로 밝혀졌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에 따라 장착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앞으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장착할 예정이다. 뺑소니범 검거 및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우리나라도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겠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되는바, 우선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운전자가 직접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박현철 전주원신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위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사설

도내 재래시장 더 개선돼야 한다

설날이 코앞인 지금 재래시장이 또다시 관심의 대상이다. 보통 때는 대형마트들에 상권을 빼앗겼더라도 명절 때는 재래시장이 활기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재래시장이 더 개선돼야겠다. 대형마트들에 빼앗긴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폭설 때문에 농산물품의 가격이 예전같지 않게 올랐는데 재래시장이 이번에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제조용품은 몰라도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싼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설 대목에 재래시장들이 제 몫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미담 차원의 바람에 그치고 있으니 안타깝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해도 적은 깨달음이다. 그래서 주고 싶은 말이 있다. 지난 수 년동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 천억 원 가량의 거금을 풀었음에도 변화가 미미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같은 지적이 명절 때면 반복돼 왔다. 재래시장의 경기가 활발해야겠다는 단 지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도내 재래 시장이 더 개선돼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재래시장의 쇠퇴가 전국적인 현상이 될지 모르나 그건 아니기에

말이다. 저변에 언젠가도 언급했거나 경인 지역의 시장들은 오히려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도내의 모든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재래시장 개선 작업이라는 게 외모 단장에만 치중했을 뿐이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거액을 들였음에도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처럼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은 답답한 일이다. 이대로 아무 변화없이 계속된다면 전통시장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재래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접근성이 용이하게 주차장을 더 넓게 조성하고 고객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재래시장의 청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에 대하여 문화공간 마련도 신경을 쓴다면 큰 도움이 될 터이다. 이제 재래시장은 자체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상인을 스스로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동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다들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 대형마트와 비교해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명절 때 반짝 특수를 잡기 위해서라도 자체 혁신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로 빈곤층과 함께 가야

설을 앞두고 전복도에 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근로 빈곤층과 함께 가야 한다. 그들을 망라해선 안 된다. 근로 빈곤층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한다. 근로 빈곤층의 당면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이다. 설 대목을 당해서 근로 빈곤층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용직 상대 운전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차로변경 운전으로 인해 신고자와 상대운전자간 시비문전이 일어 신고자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로 밝혀졌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에 따라 장착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앞으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장착할 예정이다. 뺑소니범 검거 및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우리나라도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겠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되는바, 우선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운전자가 직접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박현철 전주원신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위

계 희망사항에 그치고 만다면 곤란하다. 같은 말을 또 반복하거나 전복도는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여러 번 말했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성취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용을 담은 명백하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다.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일자리도 불안정하다면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민생 안정 약속 실천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다. 한국 전체의 가계부채가 1천2백조 원이다. 국가부채 1천5백조 원과 함께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작금이다. 그런데 최근 복지영의 가계부채 비율이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이다. 사정이 이러니 어려운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전북 지역은 다른 고장보다 빈곤층의 비율이 높다. 일자리를 찾기에 급급한 그들을 망라하지 말라는 당부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dvertisement for '정론지' (Jeongnonji) featuring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sailboat on the sea. The text promotes it as a platform for providing courage and hope to humans, an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Jeonju Daily newspaper.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간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